

● 열가지 선행으로 부처의 삶 살기

10선행은 부처 이루는 생활윤리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재가자들이 참선하는 모습. 바른 안목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십선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착하게 살라”는 말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술하게 들었던 말이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을수록 착하기보다는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기술을 습득하며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고통들, 남북 분단의 비극과 4대강을 통한 환경 파괴, 빈부격차, 경제 공황 등이 착하게 살지 못한 공업(共業)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가.

불교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단순·명확하다. 십선(十善)과 십악(十惡)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십선에 부합된 행위가 선이며 이에 반하는 행위가 악이다.

십선은 몸[身]과 관련한 3종, 말[口]과 관련한 4종, 마음의 동기[意]와 관련한 3종의 업을 합한 것이다. 십악은 살생(殺生)·투도(偷盜)·사음(邪淫)·망어(妄語)·양설(兩舌)·악구(惡口)·기어(綺語)·탐욕(貪慾)·진에(瞋?)·우지(愚癡)의 열 가지로 이들을 여의는 것이 십선이다. 십선은 십선도(十善道)라고도 하며, 십선도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계(戒)이기 때문에 십선계(十善戒)·十善法戒, 十善性戒, 十根本戒라고도 불린다.

10선은 초기경전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설해졌다. 초기 불교에서 10선은 업에 근거한 선으로 설명되며 불교적 시각으로 본 세간의 윤리였다. 대승불교에서는 계율로서 10선을 중시했다. <숫타니파타>의 ‘설산야차경’, <범망경> 소계(小戒) 등

여러 곳에서 10선을 직·간접적으로 설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마누법전> 등에서도 십선에 상당하는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지장심륜경(地藏十輪經)>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화엄경> ‘십지품(十地品)’ 등에서 10선을 설했다.

<화엄경> ‘십지품’에서 “두 번째 단계의 보살(보살지위의 제2지 보살)은 10가지 선한 업의 도를 수호해 가진다”고 설해져 있다.

10가지 선한 업의 도란 ‘보살은 마음에 ①살생의 뜻[不殺生] ②도적질할 뜻[不偷盜] ③사음할 뜻[不邪淫] ④망령된 말을 할 뜻[不妄語] ⑤두 가지 말을 할 뜻[不兩舌] ⑥나쁜 말을 할 뜻[不惡口] ⑦꾸밈의 말을 할 뜻[不綺語] ⑧탐욕의 뜻[不貪欲] ⑨성냄의 뜻[不瞋恚] ⑩삿된 소견이 없다[不邪見]”는 것을 뜻한다.

개신교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 있다. 십선과 십계명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악을 지양하고 선을 추구하는 면은 같다. 하지만 불교의 계율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교훈으로 ‘자기의 힘’에 기초한 것으로 자율적·자기 의존적·이타적(利他的)이나, 개신교의 십계명은 신의 권위에 의한 타율적·일방적·자리적인 것이 다르다.

십선이라도 실천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개인적 성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삼취정계(三聚淨戒)가 대두됐다. 삼취정계는 보살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규범을 설율의계·십선법계·섭요의유정계로 분류한 것이다.

설율의계는 모든 악을 완전히 끊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계이다. 십선법계는 모든 선을 닦는다는 의미이다. 보살이 계를 받은 다음 신구의 삼업을 통해 일체의 선을 쌓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섭요의유정계는 선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로지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비행을 뜻한다.

십선은 불교적 윤리규범으로 수동적 금지조항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생·화합의 전제이다. 또, 일체 중생이 각자 부처라는 확신은 십선을 바탕으로 한 바른 생활을 통해야만 올곧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다 악마의 길을 이룰 뿐이다.”

나와 우리의 공업의 청정을 위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라’.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생명의 소중함 바로 알아야 생명보호와 자비·용서·평등 실천하는 불살생·불진애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행위를 내가 당했다면 나 또한 아프기 때문이다. 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는 ‘연기법’이다. 모든 존재가 상의상관하며 연관된 까닭에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은 최근 4대강과 관련한 글에서 “부처님이 베푸신 팔만사천 가르침의 실천은 ‘불살생’, 이 한마디에서 출발하고 이 한마디로 귀결된다. 재가 불자의 5계, 비구 250계의 으뜸이 불살생이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님은 <범망경>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의 부모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전생의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모든 땅과 물은 우리 전생의 육신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우리의 본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오라지 생명 해방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이가 동물을 죽이는 걸 본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 동물을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구하여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했다.

소극적인 불살생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적

☞ B9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 부산불교지도자포럼

- | | |
|-------|--|
| 고문 | 김재은 김재진 조효식 최철관 설동근 박민식 |
| 회장 | 박수관 |
| 수석부회장 | 이윤희 |
| 부회장 | 권청길 김수현 박순곤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허인구 |
| 감사 | 권기우 이종우 |
| 사무총장 | 박영근 |
| 재무총장 | 정원중 |
| 총무이사 | 장병주 |
| 친목이사 | 노종현 |
| 홍보이사 | 김상훈 |
| 섭외이사 | 배도정 |
| 기획이사 | 안병호 |
| 상임이사 | 강갑균 강상태 김동열 김선오 김선일 김성규 김승영 김윤곤 김장현 김중백
김중환 박상호 박성봉 박형주 박홍근 박효근 배상진 배영호 손종현 신재철
안천일 윤경석 윤선병 윤종경 이상필 이재동 이희태 임정웅 장석준 장인화
장준업 정연식 조길제 최삼섭 최익두 하만경 하문원 허성하 |

주소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전화 051)334-0108 팩스 051)867-4397